

한기총, 교회협, 한교연 등 각 단체 신년메시지 - “2020 새해에는 치유와 위로가 되는 교회 되어달라”

한국교회 교단 및 단체들 일제히 ‘신년 메시지’ 발표



◇전광훈목사



◇권태진목사



◇엄기호목사



◇김수읍목사



◇한홍국목사



◇진요한목사



◇이홍정목사

2020년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 교회의 단체들과 여러 총회들이 일제히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들은 메시지를 통해 2020년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또한 한국교회가 예언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순수한 복음의 선포되어지고 거룩한 성례와 올바른 권징이 시행되는 참된교회의 표지를 드러내는 2020년 되기를 선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대표회장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사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대표해 전국 곳곳에서 목소리를 높여왔다”며, “다음 한 해에도 동성애와 이슬람 등 우리 사회에 침투하는 세속적 타락 문화를 일소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이 사회를 다스리도록 하는 데에 전력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연합 권태진 대표회장은 “새해에는 모두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위대함을 새롭게 인식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권 대표회장은 “새해에는 믿는 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신론과 타락 문화가 그 어느 해보다 거센 바람이 되어 불어닥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한국교회는 시대의 위중함을 깨달아 기도원과 전국교회에서 뜨거운 기도의 불을 지피고,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절규하며 비상 기도를 올려야 할 것”이라

고 선언했다.

세계복음화중앙협의회 엄기호총재는 “희망의 새해를 맞아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또한 엄총재는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연합하고 민족복음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교회도 부흥되고,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김수읍 대표회장은 “2020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한국장로교회가 이 시대에 희망을 주는 사명감을 갖게 된다”며 “한국교회는 어둠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회장은 특히 “뭉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 삼겹줄이 하나 보다 세 배가 아니라 그 이상의 몇 배 강하다”며 “한국 장로교회는 연합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대표회장 한홍국목사는 “2020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국교회의 신앙심 강화와 영성 함양 교육에 힘쓰고자 한다”며, “창립 40년을 맞이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보수교단들의 연합과 일치로 통한 복음화 사역에 적극적으로 매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지형은 대표회장은 “2020년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 사법체계, 시민단체, 경제 주체가 조화를 이루어 우리 사회가 여러 갈등 현안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더

욱 강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건강한 민의가 드러나길 기도한다”고 소망했다.

미래목회포럼 고명진 대표는 “정치적 양극화와 동성애 옹호 확산, 다음세대 출산을 저하 등 지난해 안타까움을 극복하고, 새해에는 교회가 더욱 리더십을 확보하고 복음으로 사회를 치유하는 해가 되길 소망한다. 한국교회가 바른 길을 제시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최낙신 대표회장은 “새해에는 분열된 국민의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가 되어야 하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대가 이뤄지는 평화로 열매 맺어야 하고,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새 정치의 지평을 여는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갈등과 분쟁을 없애고 평화가 온 세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교회가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조국평화통일협의회 대표회장 진요한목사는 “새해는 남북한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일치하여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에 적극 힘쓰고 나아가 한반도를 시적으로 전 세계의 평화가 세워지는 일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총무는 “지난 한 해 동안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란 주제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연합과 일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거대 권력으로 희생되는 인간 희생의 문화를 뿌리 뽑고 주님의 자비하심이 온 누리에 가득 차도록 힘써 2020년을 희망의 원년으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 총무는 특히 “새해에는 온전히 치유되지 못한 채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에게 위로의 소식이 들리기를 바란다”면서 인간의 탐욕으로 아파하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생명의 희망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구했다.

예장 대신 강대석 총회장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 힘겨운 시간들을 함께 견뎌온 대신의 동역자들에게 새해를 맞이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찬 미래의 교단 문을 대신인 모두와 함께 열고자 신년하례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합니다. 고 전했다.

예장 백석대신 유만석 총회장은 “참 힘들었던 한 해의 마지막 남은 해걸음을 뒤로 하고 새로운 비전을 향한 동역자님들의 사역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힘이 나는 그런 총회를 향한 새해의 시작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오니 2020년 신년하례회에 참석하시어 우리의 소박한 마음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역의 영광과 은혜를 기원드리며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고 전했다.

예장 합동 김중준 총회장은 “민족적 참극인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한국교회가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공존과 통일을 향해 나가는 진전이 있길 소망한다”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환경재앙이 중단되고, 모든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영철기자

단체 및 교단	일시	장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1월 1일 오전 9시	광화문 광장 광야교회
한국교회총연합회	1월 8일 오전 11시	아현성결교회
한국교회연합회	1월 3일 오전 11시	서울역 참종은친구들 강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월 2일 오후 2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
한국장로교총연합회	1월 9일 오전 11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1월 6일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 반석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1월 7일 오전 11시	청운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백대)	1월 6일 오전 11시	수원명성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1월 2일 오전 11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1월 7일 오전 11시	합동총회본부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1월 6일 오전 11시	천안 백석대학교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1월 2일 오전 11시	경주 더케이호텔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1월 2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그레이스홀
한국기독교장로회	1월 2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
기독교대한감리회	1월 2일 오전 11시	감리교본부
기독교한국침례회	1월 6일 오전 11시	침례회 총회본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1월 2일 오전 11시	그랜드힐튼 서울호텔 컨벤션센터
예수교대한성결교회	1월 2일 오전 11시	예성 총회본부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1월 7일 오전 11시	나사렛대학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로 나가는 2020년 새해

새해 1일부터 단체 및 각 교단 신년하례회 열려

2020년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 기독교연합단체 및 각 총회별 신년감사 예배를 드리고 첫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

대부분 각 총회들은 새해 첫날을 각 지교회별로 신년감사로 지낸 직후 1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광화문광장 광야교회에서 감사예배를 시작으로 2일 예장 통합과 고신, 3일 한국교회연합이 드린다.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백석대신총회, 침례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은 6~7일로 예정하고 있다.

총회 위원과 상비부서장, 노회장, 본부 직원들은 감사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자신에게 감사예배를 드림으로 확신과 이웃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지는 온전한 2020년 한 해를 의탁하는 시간으로 보낸다.

예배 후에는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하례식을 갖고 서로에게 격려와 권면을 하고 올 한해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나라를 확장하고 총회 산하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섬길 것을 다짐하게 된다.

특히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목사)는 지난 구랍 10월 3일 이후 계속 광화문과 청와대 사랑채 앞 광야교회에서 나라와 민족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등 구국기도회로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신년하례회를 별도 진행하지 않고 1일 오전 9시 신년 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대한민국, 자유시장경제 등 나라와 위정자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강영철기자

Contents

2 교단소식 3-4 지교회소식 5 신학산책 6-7 신앙과 삶 8 전면광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긴급성명서]

경찰은 현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본 총회의 전총회장인 전광훈목사를 집시법 위반 및 특수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경찰의 이 행위는 최고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른 편파 수사이며 결국은 국가 정체성을 뒤흔드는 정권에 대하여 외치는 국민과 기독교의 입을 막으려는 독재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한다.



강대석목사
총회장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신청은 한 개인과 본 교단 목회자를 넘어 오직 애국의 정신으로 모인 기독교·불교·천주교 신자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종교인 탄압으로 간주하며 강력히 항의 한다.
2. 경찰이 한국기독교 연합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오로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위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막으려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이며 한국교회를 파괴하고 해체하려는 시도로서 규정하고 규탄한다.
3. 평화로운 국민 집회를 보호해야할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은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지팡이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평화적 시위를 이끌어 오고 있는 지도부를 구속하려는 것은 국민의 저항권을 봉쇄하는 것이며 명백한 종교탄압으로 입을 한국의 6만5천 교회, 30만 목회자, 25만의 장로와 1,200만 성도와 세계 100만 교회에 알린다. 본 총회는 전광훈목사의 구속신청의 부당함을 선언하고 규탄한다.

2019. 12. 30.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강대석 목사 외 목회자, 장로, 150만 성도 일동

예장 대신 제50회 총회 속개! 목사 정년,여목제도,노회구성,상비부,이원선출 등 헌법·규칙개정안 의결!



▲ 대신속개총회가 청파중앙교회에서 열렸다.

정책위원회는 한시적 기구로, 향후 실행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총회 관계자는 "대신의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속회 총회를 소집한 전광훈 목사의 임시지위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등 여러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장 대신(총회장 강대석 목사)이 2019년 11월 18일 서울 서계동 청파중앙교회에서 총회를 속개했다.

이는 2019년 10월 17일 전광훈 목사 주도로 제50회 속회 총회가 열린 후 속개지만 전광훈 목사는 불참했다.

이날 총대들은 헌법·규칙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하나로 통합' 총회 복구 의지를 다졌다.

이날 총대들은 헌법·규칙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하나로 통합' 총회 복구 의지를 다졌다.

이날 총대들은 헌법·규칙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하나로 통합' 총회 복구 의지를 다졌다.

이날 총대들은 헌법·규칙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하나로 통합' 총회 복구 의지를 다졌다.

이날 총대들은 헌법·규칙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하나로 통합' 총회 복구 의지를 다졌다.

이날 총대들은 헌법·규칙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하나로 통합' 총회 복구 의지를 다졌다.

이날 총대들은 헌법·규칙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하나로 통합' 총회 복구 의지를 다졌다.

특히 강대석 총회장은 "속회 총회를 복구하여 모든 대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대신인 대회의 개최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의사도 표명해 대신인 연합일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이성재 사무국장은 광고에서 총회사무실은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두기로 하고, 총회행정 사무와 총회신학교, 총회신문사, 노회구성 등에 대하여 공지했다.

한편 대신총회는 지난 2019년 12월 26일 인천 송도 가나안교회에서 제1차 실행위원회 및 송년회를 가졌다. 총회 임원, 정책위원, 노회장 및 서기, 상비부서장 및 서기 등 약 60여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2020년 1월 7일 오전 11시 대신총회 신년하례회가 청운교회에서 열린다.

예장대신 총회장에 추대된 강대석 목사 - '3개로 나뉜 교단 통합시켜 정통 예장대신 회복하겠다'



▲ 총회장 강대석 목사가 교단 회복을 위한 복안을 밝히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대신이 2015년 9월 총회에서 예장백석과 통합한 이후 현재는 세 개의 교단으로 나뉘었다. 예장백석과 통합을 반대하며 남은 예장대신 수호측(총회장 황형식 목사), 예장백석과 통합했다가 지난 9월 예장백석 교회들과 함께 분립한 백석대신(총회장 유만석 목사), 또 통합 전 제49회 예장대신 총회에 이어 지난 11월 속회된 총회에서 50회기를 시작한 예장대신(총회장 강대석 목사)이 있다. 예장대신은 정통 대신의 회복과 대신 통합을 내세우고 있다.

최근 이 세 교단을 통합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통 복원을 주장하는 예장대신 총회장 강대석(인천 청운교회) 목사가 주축이다. 지난 속회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출된 강 목사를 지난달 24일 인천 청운교회에서 만났다. 강 목사는 "대신 교단을 복원하고 총회가 아닌 노회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고 장로교다운 장

로교를 만드는데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예장대신이 세 개로 나뉜 어려운 시기에 정책을 맡았다.

"본래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목회밖에 모르고 지냈다. 그러던 중에 교단이 백석과 통

합 후 나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총회장을 맡게 됐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확신하고 교단의 미래를 많이 고민했다. 속회 총회 직전에 교단 복구를 결심했다. 그러면서 장로교다운 장로교, 노회 중심적인 교단을 세우겠다고 마음 먹었다. 50회 속회 총회 직전 예장대신 수호측과 본래의 예장대신 교단을 복구하고자 노력했으나 무산됐다. 그래서 50회 총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중심으로 개회가 되었고 저를 총회장으로 추대해 수락했다."

-2015년 예장백석과 통합하면서 예장대신이 풍파를 겪었다.

"뜻은 좋았으나 실패로 끝났다. 통합 후 4년간 약속한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많은 갈등을 겪었다. 그래서 속회 총회를 소집해 예장대신을 복구한 것이다. 통합하고 보니 예장백석 사람들은 우리 예장대신과 통합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이해도 없었고 공감도 없

었다. 심지어 통합 총회를 하는 날까지 그 일을 몰랐다는 분들도 있었다.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용히 묻혀 살아야 하나, 통합 무효를 선언하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갈림길에 있다가 비대위를 만들게 됐다. 이어 예장백석과의 통합 전 예장대신의 49회기에 이은 50회 총회를 소집한 것이다. 대신이라는 빅텐트를 치고 하나 되어 본래의 대신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대신 교단은 자생교단이며 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

-속회 총회를 복구총회로 이름 붙인 것은 교단의 정통성을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다. 교단 정상화를 위한 일정과 방향은.

"예장백석과의 통합을 결의한 대신교단의 50회 총회가 지난해 무효로 판결났다. 예장대신의 정통성은 당시 교단의 법적 대표자인 제49회 총회장 전광훈 목사가 소집한 50회 총회로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예장백석에 남은 이들, 대신을 수호하겠다고 임의 단체를 만든 이들, 백석대신이라는 새 이름으로 출발한 이들 모두 다 복귀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아파할 시간이 없다. 선배들이 자랑스럽게 물려준 교단을 회복시켜 주신 오시는 그날까지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 이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

-예장대신 복구를 위한 복안은 무엇

인가.

"일단 대신 총회 복원의 구심점인 청파중앙교회에 임시 사무실을 두기로 했다. 앞으로 청파중앙교회에서 시작하는 총회신학교와 안양대학교를 통해 목회자를 세워가겠다. 권위 있는 외국인 학교와 연계한 교육도 지속할 것이다. 총회의 중앙 기능과 기구를 대폭 줄이고 장로교 본 모습인 노회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겠다. 국내전도, 세계선교에 힘을 모아 실제적인 부흥을 추구하겠다. 총회장도 권력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겠다."

-한국교회와 예장대신 목회자,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잘못했다. 선배 후배들에게 부끄럽다. 예장대신의 가치를 훼손하고 금지와 자존감을 끌어내린 것, 미안하다. '대신'이란 이름은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다. 예장대신 모든 이,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이름이다. 이제 적법한 헌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한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해 다시 세워져야 한다. 예장대신은 한국교회사에 민족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를 이어가겠다. 이전보다 더 나은 예장대신을 세워가겠다. 기도해달라. 동참해달라."

대신교회협동신문사장 최종환목사 2020신년사

였습니다.

언론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주변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대신교회협동신문은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할 것입니다. 언제나 노력하고 과거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으로 독자와 국민들이 정말 알고 싶고, 궁금해 하는 정보와 기사를 찾아내어 로컬지로서 기본에 충실하고 자체 경쟁력 향상과 한국교회와 교단발전에 공헌하고 정론을 추구하는 총회기관지로서의 사명을 다해 왔으나 재다짐을 하며 약속드립니다.

한국교회와 대신총회를 대표하는 언론사로써 어려운 경영에도 대신교회협동신문은 매년 진행해오던 전문군경미망인 위로연과 장애인함께 걷기 등, 김치선목사 및 한국 근현대사 바로알기 역사 강의등과 빠르게 사라지고 점점 잊혀져가는 옛 대신총회 교단의 역사를 찾아내고 보존해 다음세대 후배들

에게 물려주기 위해 원로들을 모시고 '대신 역사연구소'를 발족할 것입니다. 모두가 대신교회협동신문을 사랑해주시고 지켜주시신 교회들과 애독자 여러분들의 덕입니다.

대신교회협동신문 애독자와 대신총회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

지난 한해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 그대로 2019년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은 벼랑 끝에 몰려있었고 재계가 바라보는 2020년의 상황도 어느때보다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대신총회는 심각한 분열로 인하여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총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교단의 부흥과 미래발전에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대신총회는 자생교단으로 과거로부터 어려울때일수록 더 단단하고 강해졌습니다. 잠시 어둠과 같은 티끌을 통과한다면 절망속에서도 희망을 찾기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분명

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총회원과 애독자 여러분!

올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입니다. 지난 시간을 거울삼아 자유민주주의와 진리, 정의를 실현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공약은 과감하게 배격하고 자유시장경제와 한미동맹을 견고히하고 실천할수있근 사명감으로 일할수있는 정치인을 우리 스스로 가려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의 해안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대신총회'에는 대신교회협동신문이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로 더욱 정진해 나가는 신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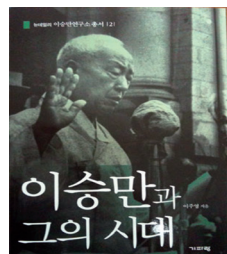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1.1

최종환목사

이승만과 그의 시대



이 책은 오늘날의 "자유와 변역"을 가져온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승만(李承晩, Syngman Rhee, 1875-1965) 대통령의 일생과 그 역사적 의미를 알리려는 목적에서 쓰여진 것이다.

90년에 걸친 이승만 박사의 긴 생애는 역사적 인물 4명의 뒷에 해당하는 다양성을 보여 주었다.

청년기의 독립협회 활동, 중년에서 노년에 걸친 독립운동, 해방직후의 건국운동, 대통령 재임기간의 통치 행위는 각각 한 역사적 인물의 업적으로 기록될만한 가치를 가진 것이다.

이처럼 길고 다양한 그의 생애를 한권의 책에서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그

래서 필자는 그의 생애 전체를 다룬 전기를 쓴다고 생각하면서도, 대한민국의 건국(建國), 호국(護國)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필자는 몇 년 전에 배재학당총동창회(당시 회장 윤영노)의 협조로 <우남 이승만 그는 누구인가>(도서출판 김&정, 2008)를 출간한 적이 있었는데, 이 책은 그것을 토대로 다시 쓰여진 것이다.

이승만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국민의 대다수가 그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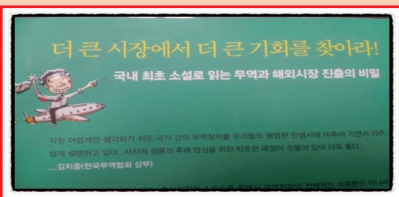
2008년의 어느 대학 연구소가 조사한 역대 대통령 인기도를 보면, 이승만은 겨우 0.6 퍼센트를 얻었을 뿐이었다.

이처럼 우리 국민 속에서 잊혀지고 지워지고 왜곡되어 있는 건국대통령 이승만을 제대로 알리는 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이 책에서 언급되지 못한 내용들은 뒤이어 나올 후속편에서 계속 다루게 될 것이다.

이주영 (李柱郢)

축복의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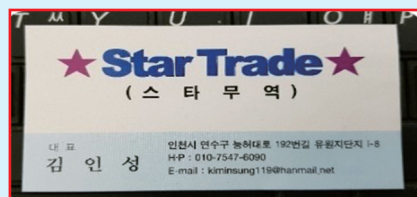
현주무역



인천 연수구 옥련동 194-75 수출2단지 (임용모터스)
HP : 010-3257-2503

현주무역 대표이사 : 이원대(수집사(열린문교회))

★ Star Trade ★ (스타 무역)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192번길 유원지단지 1-8
HP : 010-7547-6090

스타무역 대표이사 : 김인성(집사(열린문교회))

이인수목사 칼럼



이 인 수 목사

6.25참전,무공수훈,국가유공자.
(전)온누리수련원장

“역사속에서 피고졌던 술한 인물들이 행복과 불행의 거울(明鏡)이 바로 역사다 그래서 역사에다가 거울감(鑑)자를 쓴다”

얼굴에 때가 끼면 씻어야한다. 그래서 거울이 필요하다. 너와 나의 삶에 사회 시스템에 국가의 방향에 때가 끼면 거울을 봐야한다.
그 거울이 바로 역사다. 명경지수(明鏡止水)란, 맑은물과 조용한 물이란 말은 청명(淸明)하며 움직이지 않는 심경을 비유하는 말로 쓰였다. 명경지수(明鏡止水)의 뜻은 명경에 대하여 신도가 라는 사람이 스승인 백혼무인(伯昏無人)의 어진 덕을 칭송하면서 표현하기를 거울에 흐림이 없으면 때가 묻지 않으나 때가 묻으면 흐려진다.
이와 같이 사람도 오랫동안 어진자와 같이 있으면 마음이 밝아져서 그

러틴것을 아니하게 되는것이 아니라면서 명경(明鏡)이 현자의 밝고 깨끗함에 비유하였다. 장자는 명경을 응재왕편(應帝王篇)에서 지극히 덕을 가진 성인의 마음을 쓰는법은 저 맑은 거울에다 비유할수 있으리라.
맑은 거울은 물체의 오고감에 비쳐 나 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 미인이 오면 미인을 비추고 추녀가 오면 추녀를 비추며 어떤것에도 한결같이 맞이하주되 그렇다고 그들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얼굴에 때가 끼면 씻어야 한다 그래서 거울이 필요하다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다. 너와 나의 삶에 사회 시스템에 국가의 방향에 때가 끼면 거울을 봐야한다. 그러므로 거울이 바로 역사다. 역사속에서 피고졌던 술한 인물의 삶에 행복과 불행의 그 거울이 바로 역사다. 사람들은 역사학을 흘러간것 과거에 대한 학문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다 역사학은 앞으로 다가올것, 미래에 관한 학문이다. 역사학은 미래학이다. 과거는 선택할수가 없다.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선택의 상황에 설때마다 주저하고 갈등한다. 이걸 선택하면 어떤 결과와 닥칠지, 저걸 택하면 또 어떨지 알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역사를 들여다보면 결과가 보인다. 그래서 미래를 바꿀수없다. 역사를 보면 왜, 결과가 보이나 역사속엔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그리고 선택 그에 따른 결과까지 들어져있다.그래서

개인에게나 조직에게나 국가에게도 얼마나 좋은 참고서인가, 그래서 역사에다 거울감(鑑)자를 쓴다.
동국통감-단군조선(東國通鑑-檀君朝鮮)부터 고려시대까지 다룬 조선전기(朝鮮傳記)의 역사서와 자치통감-중국북송(資治通鑑-中國北宋)의 역사서를 만들때도 다 거울감(鑑)자를 썼다.
이처럼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라는 것이다. 그게 역사다. 역사속에는 술한 거울이 있다.그런데도 현실속 정치인이나 대통령들은 과오를 범한다. 그건 왜 그런가,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잡으면 그러다가 역사속에서 엮어진 수레는 많다. 엮여진 길위에 또 엮여지고 그 위에 또 엮여지는거다. 그것을 전철(前轍)이라고 부른다. 그게 바로 역사의 수레바퀴다. 앞서간 수레가 엮여지는걸 뺀히 보면서도 사람들은 그 길로 간다. 그럼 역사속에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했던 인물은 조선시대의 정조라 했겠다. 개인의 삶도 하나의 역사다. 나라의 역사만이 역사가 아니라 개인에게도 역사가 있고 집안에도 역사가 있다. 나라의 역사가 어긋날수 있듯이 개인의 역사도 어긋날수있다.
그래서, 공자는 성인이란 실수를 안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다. 유학(儒學)은 인간의 학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한다. 그런데 실수가 되풀이 되면 습관이 된다. 그럼, 개인의 역사도 빼돌려지기 시작한다. 제아무리 덕성이 높은 사람이

라해도 경우에 따라 나쁜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는수가 있는것이다.
다만, 이성이 그 나쁜 생각을 실행치 못하게 할뿐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이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이성은 어리석은 생각, 그것은 교양과 좋은 습관에서 생긴다. 나쁜 경험이 나쁜 사상을 낳고 좋은 경험이 좋은 사상을 낳는다.
‘자기에게 어울리는 삶의 방식’
어느 교수들이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온 세상이 모두 탁하다 라는 뜻의 거세게탁(舉世皆濁)을 뽑았다(만들거, 세상에, 다개, 물흐릴탁) 온세상이 모두 탁해 지 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바르지 않아 홀로 깨어 있기 힘들다는 뜻이다. 이말은 어부사(漁父辭)에 실린 고사이다.
충신, 굴원(屈原)이 간신의 모함으로 벼슬에서 쫓겨나와 강가를 거닐때 초체한 모습으로 시를 읊고 있는데 고기잡이 영감이 배를 저어 지나가다 그가 굴원 인것을 알고 어찌하여 이 꼴이 되었느냐 하면서 안타까워 까닭을 물었다. 굴원은 이렇게 대답했다. 온세상이 흐려 있는데 나만이 홀로 맑고 물사람이 다 취해있는데 나만이 홀로 깨어있다 그래서 쫓겨난 것이다.
거세게탁 아독뽕 중인개탁 아독성(舉世皆濁, 我獨法, 衆人皆濁, 我獨醒)라했다. 어부는 굴원의 그런 처신에 대해 오히려 꾸중을 했다. 온 세상이 다 흐리면 같이 따라 흐리고 세상이 취하면 같이 따라 취하는것이 성인이 세상을 사는 길

이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남다른 생각과 남다른 행동으로 이꼴을 당하느냐고 꾸중을 했다. 그러자, 굴원은 ‘새로 머리를 감은 사람은 반드시 옷을 털고, 새로 몸을 씻은 사람은 반드시 옷을 털다’ 新沐者 必彈冠 新浴者 必振衣(신목자 필탄관 신욕자 필진)면서, 차라리 강에 빠져 물고기의 배속에 장사를 지내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깨끗한 몸으로 세상의 먼지를 쓸수있느냐고 했다. 어부는 노래를 불러 화답했다. ‘창랑의 물이 맑거든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거든 내 발을 씻으리라’ 世清人濁 必洗冠 世濁人清 必洗足(세청인탁 필세진관 세탁인청 필세진족) 세상이 맑으면 맑게 맞춰살고 세상이 흐리면 흐리게 살라는 말이었다. 청탁자적(淸濁自適)의 생활을 권한 것이다.
창랑지수 청해가이 탁오영, 창랑지수 탁해가이 탁오족(滄浪止水 淸兮可以濯吾纒, 滄浪止水 濯兮可以濯吾足), 청사탁영 탁사탁족(淸斯濯纒 濯斯濁足)이라고도 한다 (출처:고사명언,명구사전) 그래서 조선시대의 정몽주와 이방언의 삶의 방식을 교훈삼아 자신에게 어울리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
하여가(何如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림침이 얹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백년까지 누리리라. 단심가(丹心歌)
이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낫이라도 있고 없고 일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끝으로, 탄식할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현실을 직시해볼때 진실한자, 정직한자, 선한자가 안보이고 없는듯하여 저절로 한숨이 쉬어지고 탄식소리가 곳곳에 들려지고 있음을 알수있다.온통 세상이 부조리로 판치고 위선과 거짓 악으로 짙어 있는듯 보여 가슴을 찢때가 있다.옛날에는 무식자와 가난한 자들이 삶에 지친 생활을 하다가 사회에 적응이 안되고 반발심이 솟구쳐져서 악을 저질르고 범죄의 온상을 만들었는데 이 시대는 과학문명이 발달되고 문화 혜택을 고단위로 받고 최고 지성인들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선도적인 삶을 살아야하며 사회와 국가에 참된 공헌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왜 그런지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고 단위로 범죄하고 사회 부패를 일으키니 어찌 탄식이 안나오겠는가, 욕영정자 단기표(欲影正者 端其表)라 했다. 즉, 그림자를 반듯하게 만들려면 본체가 먼저 똑바로 서야한다 라는 말이다.
성경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고전:5:8)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여, 종교 지도자들이여, 정신좀 차리고 깨어 기도합시다.

이인수 목사

서사라목사 천년왕국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권호덕교수



비판적 평가

1) 서사라 목사는 그의 모든 발언을 성경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의 저서에는 신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는 일은 보이지 않는다. 서목사는 성경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해석을 시도한다. 서목사는 그의 저서에서, 해석하기 힘들거나 애매한 성경구절의 내용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천국에서 주님이나 믿음의 선진들과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일이 빈번했는데, 이런 점에서 천국으로 다녀온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다녀와서 기행문식으로 보고하는 것 같다.
2) 기존 교회 풍토는 새로운 주장이 등장하는 경우 기존의 주장과 다를 경우 매우 부정적으로 단죄하려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예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그러했다. 왜곡된 보수주의 신학자들도 이런 오류를 범해왔다. 이들은 사실상 진리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수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데서는 신학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신학 발전을 위해 보다 다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그것이 성경에 부합한 것

인가,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한 어떤 무엇을 도모하는 것은 아닌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가 하는 것이다. 개혁신학의 생리는 교회 앞에 전개되는 새로운 정황을 보면서 끊임없는 신학적인 반성을 하며 성도들을 위한 바른 로드맵을 제공하는데 있다. 선입관에 얽매어 일방적인 비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자세는 결국 이념적 비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목사의 특이한 주장을 평가할 때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3) 천국과 지옥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한 서목사의 주장은 확실히 기존 교회에서는 충격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발전의 한 계기로 삼을 수는 없을까? 매우 놀라운 것은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성경의 중요한 진리가 특별한 사건 때문에 부각되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중세는 공로신앙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상이 팽배하여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의 또는 이신칭의 진리를 발굴할 수 없었다. 그런데 루터가 자기 구원 문제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이 위대한 사상이 규명된 것이다. 기존의 성경해석이나 기존 신학으로만 만족한다면 신학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서목사의 증언들은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어떤 신학이 자기 패러다임에 갇혀서 그 틀로만 해석하려고 할 때는 성경에서 새로운 진리를 발굴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도 일종의 이념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세대주의 전 천년기설, 역사적 전 천년기설, 후천년기설, 그리고 무천년기설 이 4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절대적인 것으로 말할 수 없다.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념의 틀로 신학을 형성하고 그것을 고집하고 나아가 다른 주장을 비판한다는 느낌을 준다.

그런데 이들 모두 자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세대주의가 7세대를 나누고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경륜이 다르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일관성 있게 해석하는 언약신학과는 크게 충돌된다. 후천년기설은 19세기 이성낙관주의와 결합하여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이미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다. 역사적 전천년기설과 무천년기설은 문자적 천년왕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이 둘은 첫째 부활을 두고 일치를 보지 못한다. 그리고 이 둘 다 이 세상이 불타고 체질이 녹을 때 구원의 백성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설명하지 않는다. 이 ‘어디 갈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서 목사는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하여 명백하게 대답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5) 기존 개신교 신학은 성경이라는 문헌을 그 주된 자료로 취급한다. 개혁신학은 여기에 어떤 영적인 체험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 허용될까? 아마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개혁신학은 우선 성경을 문법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일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체험이 성경을 깊이 해석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고 충격을 준다면, 이런 체험은 교회와 신학 발전에 큰 자극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즉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성경진리를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어떤 신학을 비판하고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전체가 요구하는 내용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자기 왕국으로 창조하시고 건설하셨음을 가르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인간이 자리를 차지함을 보여준다. 문제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빗나

간 것이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필자가 서목사의 저서들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것은 그의 모든 사역이 죄인들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데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일에 올인 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천국과 지옥에 가서 놀라운 것을 보고 듣고 와서 전하는 내용 그 자체를 전하는 목적이 불신자들을 회개케 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한다. 서목사의 저서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들은 그녀의 강조점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간파할 것이다. 서목사 저서에는 자기의 영달을 위하거나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한는 그런 시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직 그녀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있다.
필자가 보기엔 서목사는 성경으로 일하고 있다. 만일 성경으로 일하는 사람을 악의적으로 그 모든 사역을 부인하고 왜곡된 방식으로 비판을 한다면 성경 훼손죄를 범할 수 있음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녀의 특별한 발언은 신중하게 평가해야 되고, 평가할 경우에는 기존 성경해석에 대한 성찰 있는 반성(反省) 내지 반추(反劄)가 있어야 될 줄로 여겨진다. 사실 하나의 신학이란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이전의 주석(註釋)이 나중에는 틀린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천년기설, 후천년기설, 무천년기설 등등.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반성이 요구되고 나아가 수정이 가해지는 것이다. 서목사의 증언과 발언에 대해 진지하고 건설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본문중에서 발췌)

권호덕교수 | 현)콜부르크대학과 연구소 소장

교회사적으로 엮어낸 신앙고백집 - 김항주목사



성경은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앙고백서는 성경에 수록된 내용을 교리적으로 체계화 하여 문서로 표출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생활 하는 제 1의 문서이며 그것에 따른 신앙고백서는 제 2의 문서이다. 이 신앙고백서는 성경의 교리학을 정립하는 기본 원리이다. 성경의 교리는 지엽적 또는 개인적 신앙체험이나 학술적 표출을 넘어선 우주적 신앙고백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역사적 신앙고백은 교회역사를 통해, 일관성 있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신앙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고백한 교리적 체계를 집대성한 내용이다.

본서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수록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교회사를 통한 최초의 신앙고백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신조에 해당된 역사적 배경을 간단하게 기술했다. 신앙고백서가 형성되기 까지는 순교자들의 피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은 신앙고백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초 신자들을 교육하는데 이 신앙고백서에 수록된 제네바 교리서, 소요리문답, 그리고 하이델버그 요리문답서 등이 아주 유용한 교재가 될 것이며 또한 성도들의 성숙도를 더하기 위한 교육용으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참으로 유용한 교재가 될 것이다.

김항주목사-안양대학교 졸업, 미국 Bible Theological Seminary졸업 (Th. D),미국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졸업(Ed.D), 미국 Kernel University 조직신학교수 및 학장, 미국 Life ChristionUniversity 조직신학교수 및 학장, 대신대원대학교 교수



대신교회협동신문

대표 최종환

발행인/편집인 강영철 인쇄인 이병동 청소년보호책임자 강영철

등록번호 경기, 다 50524 등록일 2016년 4월 19일

주소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 149

전화 032-664-0153~4

후원 농협 355-0064-8056-93 대신교회협동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2019년을 정리하는 <교수신문> 올해의 사자성어로 ‘공명지조’ (共命之鳥)가 선정됐다.

전광훈목사 신성모독 발언, 비판 및 옹호 이어져 ---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 2019년을 정리하는 <교수신문> 올해의 사자성어 공명지조 선정

2019년을 정리하는 <교수신문> 올해의 사자성어로 ‘공명지조’(共命之鳥)가 선정됐다.

응답한 1046명의 교수 가운데 347명(33%, 이하 복수응답)이 선택한 공명지조는 『아미타경』(阿彌陀經)을 비롯한 많은 불교경전에 등장하는 ‘한 몸 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로, 글자 그대로 ‘목숨을 함께 하는 새’다. 서로가 어느 한 쪽이 없어지면 자기만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실상은 공멸하게 되는 ‘유명공동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불본행집경』과 『잡보장경』에 따르면 이 새는 한 머리는 낮에 일어나고 다른 머리는 밤에 일어난다. 한 머리는 몸을 위해 항상 좋은 열매를 쟁겨 먹었는데, 다른 머리는 이에 질투심을 가졌다. 이 다른 머리는 화가 난 나머지 어느 날 독이든 열매를 몰래 먹어버렸고, 결국 두 머리가 모두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공명지조를 올해의 성어로 추천한 최재목 영남대 교수(철학과)는 “한국의 현재 상황은 상징적으로 마치 공명조를 바라보는 것만 같다. 서로를 이기려고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지만 어느 한 쪽이 사라지면 죽게 되는 것을 모르는 한국 사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들어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의 사자성어 10개의 최종 후보 가운데 5위를 차지한 ‘독행기시’(獨行其是)도 눈길을 끌었다. 독행기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

는 대로 처사한다’는 비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추천한 박삼수 울산대 교수(종문학과)는 ‘군자는 곧고 바르지만, 자신이 믿는 바를 무조건 고집하지는 않는다’는 논어 위영공의 말을 인용하며 “특히 사회 지도층은 그 사고와 처사에 합리성과 융통성을 가미할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올 한 해 우리나라는 독단과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전광훈 목사의 신성모독 발언은 기독교 신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발언이지만, 정작 보수 교계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찾아보기 힘들다.

전 목사의 신성모독 발언이 알려진 뒤 비판 성명을 낸 곳은 한국교회연합과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살롬나비 등입니다. 이들은 전 목사의 자종을 촉구하며, 말조심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들은 도가 지나친 일부 발언으로 전광훈 목사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자종을 촉구한다. 즉 전 목사의 정치적 주장에는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선을 넘는 발언은 자제해달라는 얘기다. 특히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보수 연합기구 한국교회총연합은 아예 어떤 비판 성명도 발표하지 않고, 전 목사와 선을 긋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전 목사를 공개 지지하는 보수교계 원로들의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김진홍 목사는 신성모독 발언이 알려진 뒤 전 목사를 이 시대 사사라며 추



▲ 2019년 10월 3일 광화문 광장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다

켜세웠고,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목회자인 최홍준 목사와 정필도 목사 역시 전 목사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하나님이 절대주권으로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질 때

일반종교와 과학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칼빈의 정신과 같이 문화적 관조주의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있는 종교성이나 다른 종교들 및 과학에 대한 태도는 칼빈의 방식이 어느 정도 해결책이다. 일반계시에 대해서 화란의 신칼빈주의 신학이나 다른 문화적 적극주의보다 칼빈 자신의 태도와 같은 문화적 관조주의가 더 좋을 것 같다.

이는 문화적 적극주의가 문화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고 그렇다고 문화적 방관주의나 문화적 관용주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이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계속 계시하신다는 입장으로 그 관조하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아는데 두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 관조주의의 경우, 잘못된 것을 분명히 고백으로 표현하나, 그것을 바꾸거나 파괴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로부터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관조하는 자는 전 삶을 통하여 마치 순례자, 나그네, 외인처럼 땅에서의 삶과 문화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태도는 적극적으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 나타나고, 소극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곤비한 자, 순교자로서 살아 갈려는 태도가 거기에 나타난다. 동시에 사회의 변화와 소동에 특별히 민감하고 적극적이지만,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문화적 관조주의를 태도를 견지할 때, 이데올로기가 신학을 대치하지 않을 수 있으리라 사려된다. 즉, 우리는 올바른 신학적 분별력을 회복하여 영적인 사안이 문화적인 사안으로, 문화적인 사안이 정치적인 사안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강영철기자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나의 견해-1.

작금의 시대처럼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국민이 대놓고 극명하게 양분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신학공부때 한 과목을 전광훈 목사님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은혜되는 것도 있었지만 못마땅하는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혼돈의 시대에 애국운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분만의 독특한 기질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안보문제'인데, 요즘 되여지는 상황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서 눈물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군 사단이 해체가 되고 우방 국가들과의 틈이 생기고 점점 답이 없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안보불감증입니다.

저희 집안은 작은 아버지가 6.25 당시 경찰관이었던 이유 하나로 작은 아버지께서는 머리에 총을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부모님과 형제 가족 모두 죽음의 사투를 버리며 평생 장애인처럼 등이 굽은 상태

로 다리가 썩어가며 장애인처럼 사투하며 아픔으로 살아오시다 그렇게 다들 떠나셨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복음과 공산주의와는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이는 저의 아버지 어머니의 무수한 상처를 바라보며 평생 신음소리로 살아오시는 모습으로 충분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유트브를 보면서 전광훈 목사님의 비판받을 만한 기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부분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어쩌면 전목사님만이 가진 기질때문에 한국교회 복음통일 운동을 할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도 불같이 화를 잘 내거나 인격적으로 모난 인간들을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고백하지 않을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 '모'나지 않다고 자부할수 있을까요? 비성경적인 막말에 대해서는 가슴이 메어집니다. 그러나 애국운동은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도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애국운동을 끌고 가는데 기독교가 뒤에서 참여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행입니다. 기독교가 주축이 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복 순창이 고향이어서 선거때만 되면 무조건 제 고향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묻지마식으로 지금까지 응원하며 지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어도 아닙니다. 경제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것은 안보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안보를 최고로 여기고 나가는 정치인들과 정당을 지지할것입니다.

목사들이 그렇게도 목이 터져라 동성애에 반대하면서 선거때가 되면 동성애 옹호자를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을 보면서 적어도 최종 결정할때에는 사상과 신념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지함이 얼마나 무섭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목사들의 민낯에 할말을 잇은 사람입니다. 한국교회는 목사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저부터 한없이 부족한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여 성도님들이여 정신 차리고 회개하시고 광화문 광야교

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영하의 추위에 사투를 버리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총질하지 마시고 차라리 기도나 해주세요. 저도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전기장판 하나로 살기 때문에 방 온도가 요즘은 10도 정도입니다. 얼굴이 시렵고 손이 시려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보일러가 가동되어 겨울에도 훈훈하고 수도 꼭지만 틀면 더운물이 나오는 그런 호사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광화문의 광야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제가 오히려 사치를 누리는 것 같아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추위에 떨며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 사랑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사랑하며 함께 할수 있도록 언어사용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광화문 광야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왜? 이리도 가슴이悶悶하고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종 오지성 목사

화수기연(회장, 수도노회 - 정동명목사)은 1.100만원 장학금 전달

남양주시 화도읍 수동면지역 다음세대를 위한 장학사업 2년째 이어가



정동명목사

화수기연 회장

남양주시 화도수동기독교연합회(회장 정동명, 사진)는 지난 8일 지역 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장학금·양곡 전달식 및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다.

화도수동기독교연합회는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쌀(1,000kg)과 장학금(1,140만원)을 희망케어센터 및 관내 중·고·대학생(40명)에게 전달했으며, 성탄트리 점등식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의 빛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화도수동기독교연합회장 정동명 목사님(남양주 좋은교회 담임)은 “성도들의 정성을 모아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의 작은 나눔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균희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매년 풍성한 나눔을 베풀어주시는 화도수동기독교연합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웃이 이웃을 돕는 나눔의 분위기가 확산되어 어려운 이웃들이 모두 웃을 수 있는 화도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말했다.

1부 예배는 부회장 조남길목사(꿈이룸 순복음교회 담임) 사회로 증경회장 김재현목사(먹갓순복음교회 담임)의 기도, 솔리데오사모합창단의 특송, 화수기연 회장 정동명목사(남양주좋은교회 담임)의 누가복음2장10-11절 본문으로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이어 나라와민족을 위하여, 화도수동지역을 위하여, 화수기연을 위하여 합심기도를 드렸다. 증경회장 서창락목사(가양교회 담임)의 축사와 내빈인사가 진행되었다.

마지막 순서로 증경회장 박종두목사(큰사랑교회 담임)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장학금전달 및 사랑의 쌀 전달식은 회장 정동명목사가 진행하였다.

장학금전달은 서울여대 김예원(좋은교회 김근배 목사의 자녀)외 45명이 각각 장학금을 받았다.

또한 사랑의 쌀 전달식은 화도수동복지센터에게 위탁받은 동부희망케어가 쌀 50포대(20Kg 기준)을 전달받았다.

3부 성탄트리점등식은 지역교회와 증경회장, 지역기관장,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여 예수그리스도 오심을 축하하며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계기가 되길 기도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화도수동기독교연합회는 매년 풍성한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으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화수기연 다음세대를 위한 장학금은 2년전 서창락목사(가양교회 담임)의 제안으로 2화째 실시하였으며 지역교회 목회자와 지역사회의 가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목회자 자녀와 성도자녀에게 우선권을 주어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교회 내에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또한 지역내 6개 중학교에 각각 3명씩 선발하여 전달하고 있다.

장학금을 수령한 수동중학교 교장은 “화수기연에서 귀한 내용을 가지고 지역학교를 섬김으로 다음세대가 꿈을 가지고 더욱 더 학업에 충실하게 되었다.”고 전하면서 감사를 전하기도 하였다.

또 화수기연의 많은 사역가운데 주목을 끄는 사역은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이다. 이 행사는 5년 전 김재현목사(먹갓순복음교회 담임)의 제안으로 5화째 실시하였으며 지역은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에 50%를 지원하고 기독교 및 지 교회 독거노인등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된다.

사랑의 쌀을 수령받은 비전나눔대표는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랑의 쌀로 섬기는 화수기연에 모든 목회자와 성도님께 감사를 전하였다.

한편 화수기연은 증경회장단을 추천하여 오찬을 대접하면서 그간의 섬김과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회장 정동명목사는 화수기연 150여교회가 하나가 되어 지역을 위하여 섬기고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전하고 이 자리까지 있게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과 선배 회장님들께 감사를 전했다.



▲ 화도수동지역기독교연합회가 매년 지역중등학교 및 목회자 자녀 장학금을 조성하여 전달하고 있다 사진은 2019년도 장학금을 46명에게 전달했다.

칼럼



〈김영국 목사〉
개혁주의성경연구소 소장
뉴욕과학아카데미(NYAS)

“거룩한 삶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희망 있어”

한 해를 접고 새해를 맞이하지만 희망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에게 돌아갈 것 같다.

미래에 대한 희망 열려 있어

요즘 국가는 물론 기업마다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외적인 경제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나 기업에 있어서 현금 흐름의 원활화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성장성 및 활동성 지표를 내보이면서 국가나 기업의 건전성을 증명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적 경제 위기와 함께 증명된 사실은 금융 자본과 산업자본이 전혀 별개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요 이제 대부분의 자본들은 예측이 불가능한 투기성 자본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고전적 의미에서 잉여현금흐름이나 기타 경제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큰 기업이나 개인 및 국가일지라도 과거보다 더 위험 부담이 큰 입장에서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이 길면 길수록 국가가 상상하기 쉬운 규제된 독점 기업들이나 과점경쟁에 속한 소수의 기업들이 서민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는 외적인 경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자로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은 그런 외적 경제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자연친화적인 삶의 질로 도약하는 좀 더 행복한 길로 가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도 이웃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기회

성도들의 덕과 하나님의 보응

들이 찾아오고 있는 셈이다.

첫째로 아테네 민주주의 정치의 이상에 따르면 관원들이나 국가 공무원들이란 명예직에 가까웠다. 그런 직책들은 모든 시민들에게 언제든지 한번 돌아 올 수 있는 방식인 재임이 없는 선거에 의한 임기직 직임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정치체제에서는 정부란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금에 와서 국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는 정당정치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이상적 정치체제는 복잡하고 빠른 현대사회에서 극히 비효율적이고 군사 경제적으로 오용될 경우 서민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 위기로 인하여 세계경제, 세계화폐, 세계국가에 대한 요구가 질어져 가는 시점에서 정보매체들이나 인터넷의 발전으로 아테네 민주정치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더 크게 열고 있기 때문에, 오용될 위험성을 제거한 정치체제의 이상적인 발전이 세계 역사 앞에 전개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서민들 스스로가 자연친화적인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자신의 삶의 질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7년 통계에 의하면 태양에너지 이용 수준을 보면 전체의 46%은 독일이 차지하였고 스페인이 23%, 일본이 8%, 미국이 8%, 이탈리아가 3%, 프랑스가 2%, 다음 한국이 2%, 중국과 인도 각각 1%, 세계 나머지가 6%로 해서 세계 태양에너지 이용도가 나타나고 있다. 즉 태양에너지 이용도가 아직도 아주 미미하다는 말이 된다.

서민들의 행복한 삶에 있어서 에너지의 독립성이란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최근에는 화석 에너지를 사용함 없이 가솔린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 겨울로 접어들기 전에 낙엽들이나 열매들을 수거하여 가솔린, 알코올,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그런 가정용품들이 발달하면, 그런 에너지 독립성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원천기술로서 수소를 만들지 않고 비싼 촉매도 없이 몇 방울의 물만을 공급하여 6시간 이상 1㎤ 당 0.4-0.5 V, 0.6 - 1.1 mA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자연적 폴리머가 발견되었다.

그런 폴리머는 섭씨 80-100도의 온

도에서 얼마든지 생산될 수 있고 물의 온도만 더 높여도 그 전력 생산력이 급격히 증가하며 더구나 수소와 산소를 분리시키는 촉매를 섞으면 그 전력 생산력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제 가정에서도 간단한 장비와 적당한 기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들이 확보된 셈인 것이다.

다만 그런 폴리머가 물을 통해서 어떻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

비가 지금의 역동적 핵 관광기술(DNP)을 결합한 높은 테슬라 핵자기 공명장치(DNP-NMR)에 의한 영상에 의해서도 충분히 관찰할 수 있을는지 큰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연친화적인 기술들이 미래의 서민들의 희망인 셈이다.

셋째로 모든 생명체나 자연자원들은 그 자체로 귀한 것으로 그 이용 시 전체 자연 질서의 차원에 있어서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자원들을 나노 크기보다 작은 세계의 기술로 이용할 시 그렇게 이용된 자원들을 다시 수거할 수 있는 기술도 함께 발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 이용도가 높은 더 작은 물질 세계에 대한 오용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인류 자신에게 돌려 줄 것이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패망으로 이끈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처럼, 첫 자연의 질서가 아닌 재창조의 자연의 질서는 첫 자연의 질서인 우리 자신에게 더 크고 급하게 피해가 줄 것은 당연하다.

칼빈의 이해대로 하나님의 용납과 보상 뒤에서 이중적 용납(duplex Deiacceptio)과 보상(duplex Deimerces)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방식은 자신이 만든 대상에게 자신의 일을 가지고 그 대상에게 상급을 주시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아야

따라서 성도들이 거룩한 길을 간다는 것이 서정이요 방식이라고 한 것은 우리의 행위나 덕목이 그 자체로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순서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처음 주신 질서와 원리를 존중하여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복이 되는 길이다.

기고



윤대명 목사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당선이 선거위원회에 확정되면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집에 들어간다.

문 대통령께서는 국회 로텐더 홀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민족 문화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하셨다. 이 선언은 2017년 5월 10일에 이루어졌다.

국민들에게 취임사를 하시면서 한 번도 경험치 못한 나라를 경험해 볼 것이라라고 해서 국민 모두는 기대와 희망에 차 있었다.

그러나 막상 임기가 절반을 지난 현재 국민의 대다수가 느끼는 감정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임후보시절 문 대통령에게 질의하였다. 북한을 대한민국의 주적입니까? 그러나 침묵하였다.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우선 국가는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다.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국군 통수권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질문에 침묵하고 있을 때, 국민들은 다그쳐 물어야 했고, 또한 이 대답이 명확치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원수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국운인자 국민의 실수인지 그 당시 여당의 분열로 인한 탄핵 결정을 하고 난 후의 국민들의 반감에서인지 모르지만 문재인 씨

가 대통령이 된 것이다. 그의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그 선서의 실천 방향이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확연이 드러났다. 임후보시절 침묵했던 그 뜻을 드러낸 것이다. 리셉션 시간에 동석한 국내외 귀빈들, 특히 북한의 고위층 김영남과 김정은의 누이 김여정도 참석하고 있는 자리에서 환영사 중에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이 신영복 선생은 겨울철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것을 정겹게 일컬어 원시적 우정이라고 했습니다.’라고 발언을 한 후 청와대를 방문한 김정남과 김여정과 함께 신영복이 썼다는 통(通)자 앞에 서서 기념 촬영을 했다.

신영복은 1968년 7월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된 후 1988년 8월 15일 그

인민공화국에서 사망했다. 그는 임시정부에 소속되어 혁혁한 레지스탕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남북이 두 개의 국가가 될 때, 김원봉은 김일성의 편에 섰고, 1950년 한국전쟁 침략군의 최고의 자리에서 김일성을 보필하다가 1952년, 195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노동부 장관도 지냈다.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통일의 개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다. 심지어는 김원봉을 대한민국의 애국공로자로 서훈 문제를 거론했던 사람이다.

평화통일의 개념은 북한의 적화통일을 이루도록 국가 원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는 아닌지 의문 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국정 하나 하나가

3년후 38만명으로 줄인다고 한다. 이러한 군사작전 동향을 보면서 국민들은 불안한 것이다. 공군과 해군 전력은 우위라고 한다. 그래도 육군부대가 주둔하여야 국경을 지키게 된다.

혹시 고려연방제를 북한의 김정은과 문재인이 생각을 같이한다면 현재의 전방 정에 사단을 후방으로 이동하고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단을 해체하는 것은 서울과 경기를 내어주고 충선을 실시하는 김대중 씨가 일찍부터 주장해온 고려연방제를 추진하고 있지나 않는지 의심된다. 매우 위험한 도박이다. 문 대통령의 평화통일 정책과 행동은 김정은의 적화통일을 적극 돕고 있다. 북한이 그토록 소원했던 북한과 미국의 직접 대화를 문 대통령이 중재하여 성사시켰다. 미군 철수가 가능하도록 지소미아도 종결 지으려 했다.

남한을 고립시키는 소위 반일을 주장하는 것으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태평양 안보 벨트를 끊는 것은 적극 적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 탈북자의 북한 송환한 것은 국제인권법을 무시하고 강행했다. 북한의 핵탄도 발전할 기회를 주기 위해 미국의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북한의 핵포기 불가능은 잘 알면서도 북미회담을 왜 중재했을까? 문 대통령은 국가 보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오직 평화통일의 가면을 쓰고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이런 맥락에서 선거법 개정 및 공수법을 개정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지는 않는지 의문스럽다. 그래서 국민은 잠 못 이루고 있다.

국민은 잠 못 이루고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민족 문화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

당시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의해서 가석방되었다. 그의 고향은 밀양이다. 그의 대학시절 항상 친구들을 즐겁게 해준 엔터테이너였다고 한다. 남로당 총수 박헌영 역시 이야기꾼이었다. 그와 닮은 꼴이다. 다재다능한 신영복 그는 1968년 7월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된 후 무기수가 되었고, 그는 통혁당을 조직하여 대한민국에서 무장봉기 주요시절 파괴, 정부요인 암살 등을 기도했던 것이다. 북한의 적화통일 전선의 가장 중심에 있던 인물이다. 이 사람의 사상과 인격을 존경하는 사람을 국가보위를 책임질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은 그 책임이 국민들의 몫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평화통일이 국정의 우선순위였다. 영화 ‘밀정’에서 주인공이던 김원봉은 1898년 밀양에서 태어났다. 1958년 11월 조선민주주의

의심이 되고 국민들은 불안한 것이다. 평화통일을 위해서 군사평화 조약을 체결하자마자 전방 GP를 모두 폭파했다. 그 자리에 북한군 장교도 동침했다. 그리고 양구군민이 군부대 해체반대 상경 사위를 하고 있다고 KBS가 뉴스를 보도했다. 이상건 2사단 해체반대 범군민 추진위원장은 노도부대는 한국의 정에 중 정에부대이다. 왜 해체하느냐고 외치면서 분노하였다. 국방부는 입을 다물고 있다. 또한 27사단 해체 반대라는 현수막이 27사단 지역에 빼곡히 걸려있다. 제20기계화보병사단, 제23보병사단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많은 부대를 해체한다고 한다. 물론 후방부대에 흡수하여 ‘신속대응사단’을 만든다고 한다. 군사작전은 비밀이므로 최종 귀추는 알 수가 없다. 북한병력은 107만명, 한국은

신학산책

장로정치의 3대원리 꼭 암기하세요



신원균 목사
분당한마음개혁교회

- 1)장로들에 의한 정치(회의제, 대표제 정치-목사와 장로)
- 2)동등한 교직평등(목사들 사이, 목사 와 장로사이)
- 3)상회[당회,노회,총회]의 관계된 단계 별 회의

1항-목사와 장로가 모여서 다스리는 회의제, 즉 대표원리 정치입니다.

2항-많은 분들이 목사와 장로의 평등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이 항목은 목사가 다른 목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목사들 사이의 평등성이 더 중요한 원칙입니다.

목사와 장로의 평등은 오해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행정권과 처리권은 동등하지만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신분개념이 아니라 직분의 의미에서 말합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워야 하는 부분이 나뉩니다. 그래서 당회 중이라도 장로들은 성경을 배워가면서 행정면에서 동등성을 갖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수가 많으면 숫자상으로 당회에서 교직 평등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직평등은 단순한 평등개념이 아닙니다. 많은 장로들이 당회에 참여해도 한 분 목사님의 지도와 권면을 받으며 동등성을 발휘합니다. 목사님은 한 분이지만 여러 장로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항상 가르치는 자로 있어야 1:1의 당회 평등성이 유지됩니다.

장로들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목사님과 1:1의 평등으로 행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

닙니다. 단순 숫자로 평등 개념을 접근하면 당회에 장로가 2명만 돼도 평등성이 깨집니다. 장로님들은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행정부 지도자의 거부권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모든 장로님들이 같은 결의를 했어도 목사님이 거부하면 중단해야 합니다. 목사 1인은 장로 전체 수와 항상 1:1의 평등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반대하면 왜 반대하는지 좀 더 신중하고, 신학적 성경적 이유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물론 목사님이 반대하지 않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당회의 많은 논의들은 단순한 행정 논의가 아니라 항상 신학이 침투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당회 중이라도 장로들은 목사의 권면과 지도에 귀를 기울이면서 동등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독립파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3항-상회적 연합관계, 노회와 총회는 상회로서의 단계별 연합관계를 형성합니다. 상회는 로마 가톨릭처럼 위계와 강요의 복종관계도 아니요, 독립파처럼 의무와 복종개념이 없는 친교관계의 넓은 회의도 아닙니다. 장로교 상회는 항소와 복종의 의무와 책임을 갖는 확대회의요, 상회회의입니다.

최근 상회개념을 교권주의라고 비판하는 독립파, 회중파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한 넓은 연합회는 장로정치원리가 아닙니다. 이 차이를 구별해야 합니다.

장로정치는 성경적인 유일한(only) 정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고유한(special), 더 나은 더 우위적인 정치입니다.

(딤후5:17)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연재] 이승만 시대(1) 눈먼 소년, 서양 안약으로 눈 뜨다



연재 이승만과 그의 시대(1)

1. 문명의 전환기에 성장한 서울 소년 격랑속의 서민 왕손(王孫) ①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충돌이 시작 되던 해 태어나다

우남 이승만(靑南 李承晩, Syngman Rhee, 1875~1960)은 조선왕국이 해양으로부터 밀려 들어오는 새로운 문명의 물결에 휩쓸려 흔들리기 시작하던 1875년(3월 26일, 음력 2월19일)에 태어났다.

그 때는 바로 일본이 한 반도 침략의 구실을 찾기 위해 운양호 사건을 일으켰던 해였다. 그때는 조선왕국이 그때까지 해오던 대로 중국 중심의 대륙문명권(大陸文明圈)에 그대로 남느냐, 아니면 서양 중심의, 그리고 일본이 포함된 해양문명권(海洋文明圈)에 새로이 편입되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되는 시기였다. 다시 말해, 한반도로서는 '문명의 전환'이 느껴지기 시작하던 때였

다. 그러한 문명의 전환기에 조선왕국의 지식인들은 대응 방법을 놓고 두 가지로 갈렸다.

개화파(開化派)는 하루 빨리 개혁개방을 통해 선진문명을 배워 부국강병을 이룩하자고 주장했다. 그들의 대부분은 일본의 국가주의에 매력을 느꼈다. 그들이 일본에서 새로이 발견한 국가(國家)는 조선왕국에서처럼 단순히 종묘사직이나 지키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철도를 놓고 공장을 세우고 선진국에 유학생을 파견함으로써 사회를 발전시키려는 적극적인 것이었다. 개화파의 일부는 미국의 자유주의에 대해서도 매력을 느꼈다. 그들이 미국인들로부터 발견한 새로운 생활방식은 개인(個人)의 자유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개인주의적이고도 민주주의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개화파는 국가주의적이거나 아니면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와는 달리 위정척사파(衛正斥邪派)는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기존의 체제와 생활방식을 지키려는 수구적이고 전통주의적인 지식인들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해양세력의 침투에 대항하려는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보였다. 그들의 반(反)외세 성향은 기독교층에 반감을 가진 민중, 즉 농민들의 민족주의적인 반외세 운동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

여기서 다루게 될 이승만은 개화파에

속하게 될 운명이었다. 그리고 그는 길고도 험난한 과정을 거쳐 “개화파의 전통”을 이어 나가 1948년에 한반도 최초의 자유민주국인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세운 대한민국은 중국 중심의 대륙문명권을 벗어나 미국 중심의 해양문명권에 편입되는 '문명의 전환(轉換)'을 달성하게 될 것이었다.

황해도에서 태어나 두 살 때 서울로 오다



▲ 현재 서울역 앞 건립면에 있었던 도동(桃洞)서당 시절(1983년) 아버지 이경선(李敬善)을 가운데 모시고 찍은 사진. 18세 이승만(오른쪽)과 서당 친구 김홍서.ⓒ②

이승만이 태어난 곳은 황해도 평산군 마산면 능안골(능내동)이지만, 근본적으로 그는 서울 사람이었다. 원래 그의 조상들은 서울에서 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증조부 때 가세가 기

울어 황해도의 해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도 버티기 어려워 평산군의 시골로 옮겼던 것이다. 그러나 두 살 때 서울에 다시 올라와 졸곧 살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 서울 사람으로 통했다. 나중에 독립운동 할 때도 그는 기호파로 분류되었다. 그 때문에 그에게는 지방색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지역을 초월해 인재를 등용했다.

이승만(아명은 승룡)에게는 누이가 둘 있었는데, 각각 해주 우씨와 평산 심씨 집으로 시집을 갔다. 그러므로 이승만은 6대 독자였다. 이승만은 태종의 맏이들인 양녕대군(讓寧大君)의 16대손이었다. 양녕대군은 세자책봉을 받아 왕위에 오르게 되어 있었으나 동생(세종)에게 넘겨주어야 했던 비운의 왕자였다. 따라서 이승만 집안을 비롯한 그의 후손은 대부분 조선왕국에서는 별로 빛을 볼 수 없었던 한파(寒派)에 속했다.

아버지 이경선(李敬善, 1837~1913)은 '남산골 셋님'의 전통을 물려받은 고지식한 선비로서 일생 돈을 번 적이 없었다. 그 때문에 살림은 어머니가 어렵게 꾸려가야 했다. 그래서 이승만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했고, 그 때문에 그의 생각과 느낌이 서민적이었다. 그에 따라 조선왕조에 대한 반감과 함께 전통 사회 전체에

대한 저항의식도 강했다. 그는 자신을 늘 대중선동가로 생각하면서 살았다.

시력을 잃었다가 서양 의학의 힘으로 되찾다

황해도에서 서울에 올라 온 이승만은 오늘날 남대문 밖의 서울역 근처의 염동에 살았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대신을 지낸 이권하가 운영하는 낙동 서당에 아들을 다니게 하기 위해 충무로 뒤의 낙동으로 옮겼다. 그러다가 남산 서쪽의 도동(桃洞)에 정착했는데, 양녕대군의 봉사손으로 판서를 지낸 이근수의 도동 서당에 다니기 위해서였다. 거기에는 양녕대군의 위패를 모신 사당 지덕사(至德祠)가 있었다.

그가 살던 초가집이 우수현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승만은 그의 아호를 우남(靑南)으로 했다. 이처럼 사는 곳을 자주 옮기게 된 것은 가난 때문이기도 했지만,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잘 가르치려는 어머니의 열정적인 교육열 때문이었다.

이승만은 다섯 살 때인 1879년에 시력을 잃을 뻔한 위기를 당했다. 눈병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 다녔지만, 소용이 없어 마지막으로 오늘의 명동과 충무로에 해당하는 진고개의 일본인 의사를 찾아 갔다.

당시 조선인들은 신식 병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을 때였다. 일본인 의사

는 아버지에게 안약을 내주면서 하루 세 번씩 눈에 넣어주라고 했다. 그리고 약효는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나타났다. 어머니가 앞 못 보는 어린 이승만 앞에 밥상을 놓고 손가락을 손에 쥐어준 뒤 부엌으로 돌아갔을 때였다. 갑자기 그의 눈에 방바닥의 돛자리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다. 앞이 보인다고 이승만이 소리치자, 어머니가 달려와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겨앉았다. 아버지는 이승만을 데리고 일본인 의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러 갔다. 가난했기 때문에 선물로 겨우 달걀 한 꾸러미를 들고 갔다. 그 의사는 웃으며 어린 아들에게 먹이라고 되돌려주었다.

저자 이주영(李柱郢): 건국대 명예교수, 뉴데일리 이승만 연구소 공동대표.

1942 평북 용천 출생. 인천중-제물포고 졸업, 서울대-서강대-하와이대 사학과 수학, 프린스턴대-콜럼비아대 사학과에서 연구, 역사학회-한국 아메리카학회 회장 역임, 건국대 사학과 교수, 부총장, 대학원장 역임
주요저서: 미국의 좌파와 우파/ 미국사/ 미국현대사의 흐름/ 빼앗긴 서양 문명의 역사/ 빼앗긴 우리역사 되찾기/ 한국현대사 이해/ 우남 이승만 그는 누구인가

미래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지금까지 어떻게 세계정상으로 만들었을까?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어 36년 동안 고통을 당하며 살았고, 세계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고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형편은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이며 어디에 부터 있는지 세계지도를 펴 놓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우리는 우리나라이니까 찾지만 외국 사람들은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 없는 참으로 작은 나라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독립국가로 새 출발을 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불과 반세기가 넘게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신생국가중 빈국 중빈국에서 유일하게 발전하여 경제대국이 되고 민주화 국가가 되었다.

정말 잘 산다 못 산다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은 점도 있었지만 우리는 행복한 국민이고 잘 사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 못지 않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60년대 그 때 사람들이 다 그랬지만 나흘을 굶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데 칠판의 글씨가 잘 안 보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보리 고개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선배는 그렇게 어렵고 가난한 세월을 이겨 내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40,50,60대 후배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기 바랍니다.

1960년대 아프리카의 가나와 한국의 사정이 굉장히 비슷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구도 비슷하고 국토도 비슷하고 생산기술, 공산품 심지어 해외 원조액까지도 비슷 했습니다. 우리나라 초반에 GNP가 60불 수준이었고, 또 1960년대 필리핀은 아세아에서 일본 다음가는 경제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영도력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와 좌익혁명의 세력에 밀려 친중, 친노의 노선으로 기울면서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고 경제적인 문제도 어렵

게 되어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은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개발에 결정적인 마중물 역할을 했다. 당시 일본의 외환보유액 절반에 해당하는 유,무상 자원금은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 건설등 한국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구현됐지만 그보다 더결정적인 것이 이후 반세기에 걸쳐 끊임없이 이르워진 일본의 선진 기술과 산업 노하우의 제공 및 핵심 고급 인력과의 인적 교류였다.

미래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과거사와 국제적인 문제를 온 국민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국민 된 도리를 다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일협정과 박정희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한 배상금은 얼마이었나? (한일회담 : 14년) 이승만 - 장면 정권에서 9년 동안 협상을 했고, 박정희 정권 5년 만에 타결을 보았다.

타결 액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 상업차관 3억 달러(총 8억 달러였다) 정부부분 청구액 5억 달러는 1966년부터 75년까지 10년에 걸쳐서 나누어 받되 매년 무상 3,000만 달러, 유상 2,000만 달러 이렇게 총 5,0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 하기로 했다.

유상 2억 달러에 대해서는 산업시설과 기계류등 공공차관의 형태로 7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 하되 금리는 연 3.5%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서는 마치 선진국들의 은행의 기업 프로젝트에 자금을 빌려준 후 부터 자금사용 과정을 감시하듯이 일본 역시 빌려주는 돈을 받지 못 할까봐 사용과정을 감시했다.

★박정희는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나? 1976년 당시 경제기획원 발간 “청구권 자금백서”에 따르면, 전체 청구권 자금의 55.6%가 포항제철 건설 등 광공업 투자에 사용되었다.

유상 2억 달러는 대부분 포항제철등 기간산업과 경부고속도로 등 사회간접 자본 시설 확충에 사용되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도 전체 자금이 18%를 투입했다.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 (2,161만달러) 경부고속도로 건설 (689만 달러) 상수도 확충 건설 (178만 달러) 한강철교 복구 건설 (89만 달러) 영동화력발전소 건설 (178만 달러)철도시설 개선 (2,027만 달러)등이 이 때 이뤄졌다.

상대적으로 농어민에게 돌아간 자금은 많지 않았다. 농림업에 7.8% 수산업에 5.4% 등 농림업에 총 13.2%를 배정했다. 이 중 포항종합제철 건설에만 무상 자금 3,080만 달러와 유상자금 8,868만 달러등 총 1억 1948만 달러를 몰아주었다. 전체 청구권 자금의 23.9%에 이른다.

광공업으로 도입된 원자재 1억3,282만 달러도 대부분 포항제철 건설하고 가동하는데 사용되었다. 원자재 까지 합치면 전체 청구권 자금의 절반 이상을 포항에 투입했다. 포항제철 제2기 고로에 점화 (1977년에 이루어졌다).

★아세아의 다른 나라들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과 그 보상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아보자!

일본으로부터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은 나라는 다음과 같은 5개국이다. (필리핀, 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펴낸 지난 서기 2,000년도 “대일청구권 자금의 활용사례 연구”에서 (연세대 경제학과 김정식 교수가 발표한 표의 의하면) 대일청구권의 자금은 받은 나라 중에서 한국이 청구권자금을 최고로 잘 사용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무상자금은 필리핀이 5억5,000만 달러로 제일 많았고, 한국이 3억 달러, 인도네시아 2억2,308만 달러, 미얀마 2억 달러, 베트남 3,900만 달러 순이 었다. 일본이 차관 형태로 지원하는 유상자금과 민간이 자금을 지원하는 상업차관을 합칠 경우 한국과, 필리핀이 각각 8억 달러로 제일 많았다. 인도네시아는 대통령의 개인 별장이 있는 곳에 호텔을 짓고, 부유층을 위한 백화점을 지었다. 청구권 자금의 효율성이 가장 낮은 국가였다. 필리핀은 향만 및 도로건설

등에 사용했지만 당초 댐 건설 및 철도 연장 계획이 계획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대지주와 대자본가 등이 필리핀 정치를 주도하면서 일본의 배상금이 이들의 이권을 채우는데 활용됐다. 미얀마는 파괴됐던 철도 및 도로 복구 등에 주력하면서도 당시 총리의 ‘복지국가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사회복지 부문에도 상당액의 자금을 투입했다. 베트남은 전체 자금의 50% 이상을 발전소 및 송전시설에 투입했다.

★이 통계 하나만으로도 오늘의 대한민국은 박정희가 이룩한 신화였다.

당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박정희 대통령은 자금 유출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했다. 그 때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에는 군의 공병대 장교들이 대거 파견되어 난립 공사와 자재 유출을 감시했다. 아무래도 민간업체 보다는 청렴한 집단은 그래도 군인들이 었다. 포항제철 공사를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았다면 지금의 수십%가 유출 뻔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중국의 등소평까지도 그토록 부러워했던 오늘날의 포항제철은 건설되지 못했을 지도 모를 일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박태준씨에게 특별한 마패를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세도가들이 찾아와 여러 가지 압력을 넣거나 회유를 할 때마다 박태준씨는 그 마패를 보여주면서 모든 이권과 청탁을 차단했다고 한다.

일본의 소니사는 야키모 모리타가 이룩한 신화였고, 파니소니사는 마츠시다. 고노스케가 이룩한 신화였다.

★박정희 집권 초기에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한국보다 3배 더 잘 살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이들보다 10~13배나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이는 순전히 박정희가 이룩한 한강의 기적 때문이었다.

아키도 모리타와 마츠시다 고노스케는 일본 국민의 신상이지만 한국의 박정희는 세계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신화를 창조한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온갖 욕을 다 먹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구조가 잘못 되어서 그런지 또는 무식해서 그런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소수의 반대자의 선동에 휩쓸려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분별을 못하고 부화뇌동하는 상태에서 흡쓸리고 있는 현상이 아타가울 뿐이다.

★그러나 조선만은 이러한 외부 세상에 눈과 귀를 막고, 오직 정적을 모함 모략하여 죽이고 귀향 보내는 데만 열중하였다.

일제 강점 공간의 조선왕국을 볼 때 세계유수 열강들은 누가 더 많은 식민지를 보유하느냐에 국가의 프라이드로 여기면서 식민지 쟁탈전에 몰입했다. 당시 이러한 나라라면 누구에게든 먹힐 수밖에 없었다.

1905년 7월29일 일본총리 가쓰라 다로 하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특사인 육군장관 W.H 태프트 사이이 조선을 가지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며 이 밀약에 의해 1910년 을사보호조약이 강요됐다. 러-일 전쟁이 발발 직후 루즈벨트 대통령은 당시 조선을 이렇게 평가했다. “1910년 이래 조선은 자치할 능력이 없으므로 미국은 조선에 대해 책임을 저서는 안 되며,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여 조선에게 불가능했던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능률 있게 통치한다면 조선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고 확신 한다” 미국의 원자탄에 의해 조선이 해방됐을 당시에도 미국은 조선에 자치능력을 당시에도 미국은 조선에 자치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만일 당시 조선을 일본이 합병하지 않고 러시아나 중국이 합병하여 지배하게 되었다면 우리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이런 글을 써서 친일파로 몰릴지 모르지만 오히려 러시아나 중국이 식민지로 삼지 못하고 일본의 식민지화 한 것이 천만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일제하에서 공부를 했던 저와 많은 사람들은 선악 구별이 반듯하고 도덕심이 강했다. 일본인 교사들 중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었지만 존경을 받을만한 훌륭한 교사들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5,000년 역사가운데 900회의 외침을 받아 오면서 지배계급은 언제나 외세에 연합하면서 부를 누렸고,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여 목숨을 버린 사람들은 민초들이었다. 그 민초에서 우뚝 선 지도자들이 바로 이순신, 안중근, 유관순, 같은 사람들이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이후에도 나라의 꼴이 제대로 갖추지는 못했다.

당시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 가운데 미국과 소련은 군대가 한반도에 들어와 통치했기 때문이다.

두 나라의 군대는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나누어 각각 한반도를 약 3년 간 통치했으며, 남북한은 그동안 독립국가로서의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반도 하나의 정부를 수립하는 일은 남,북간의 의견 대립으로 난관을 맞게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국제 평화와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 기구인 유엔 (UN,국제연합)에서는 “가능한 지경 만이라도 부를 세운다.”는 방침을 결의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1948년 5월10일 남한에서 유엔의 감시 아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총선거로 뽑힌 국회 의원은 모두 198명이었다. 이들은 곧바로 제헌 국회를 구성한 다음 5월31일에 첫 회의를 시작했다. 제헌 국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헌법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근본이자 으뜸이 되는 법으로, 국가의 조직이나 구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마련 되었다.

1948년 12월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을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 그러나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정부를 세웠다.

1946년에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장으로 김일성을 선임했으며 1948년 9월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을 선포했다. 이로써 한반도에는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고, 분단 체제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

김효진 원로장로 1946년 월남, 교육자

사설

팀 켈러Timothy Keller는 마이클 폴라니Michael Polanyi의 글을 인용해 말하길 인간의 모든 개별인식 행위가 두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봤다. 하나는 앎의 주체가 직접 주의해서 대상을 관찰하는 ‘조점 인식’이고, 또 하나는 앎의 주체가 무의식 중에 많은 무언의 가치를 활용하는 ‘보조 인식’이다. 모든 인간에게는 실재와 해당 주제에 대한 수많은 신념이 있으며, 이런 신념은 신체적 체험, 믿을 만한 권위, 소속 공동체 등을 바탕으로 견고해진다. 그렇게 우리 속에 들어온 신념을 우리는 무언의 지식, 무의식의 믿음, 실재의 ‘패러다임’paradigm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 말은 무엇을 관찰할 때 기존 신념과 기대와 가치라는 선이해를 바탕으로 결정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은 어떤가? 희망적이라고 보는가? 대답은 이미 한국의 목회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기에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위험한 교회의 7패러다임이 있다. 이 패러다임에 우리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처방이 가능하고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흐름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어느 시대, 어떤 사람도 교회를 알지 못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유일한 인도만 있을 뿐이다. 교회에 대해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교회의 패러다임을 말하는 것도 부질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God plants church. 그러나 아직도 한국교회는 처치 플랜팅church planting, 처치 플랜터church planter라는 말이 생소하리만큼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외국으로부터 많은 목회

패러다임과 정보와 자료들을 공급 받고 많은 영향을 받았다. 1970-80년대 한국교회의 제2 부흥기도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 목사의 영향이 컸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 로버트 쉐러Robert Schuller, 릭 워렌Rick Warren, 빌 하이벨스Bill Hybels, 조엘 오스틴Joel Osteen 등과 같은 목사를 초청하고 그들의 목회를 소개하여 한국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교회는 표류하고 있다. 세계의 주류교회들과 이탈된 교회 트렌드는 물론 교회의 의식과 방향 상실, 목사들의 탈진, 교회 내외부의 부정적 시각, 사회적 흐름과 문화,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데올로기까지, 한국교회는 플라토 현상plateau phenomenon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왜 한국교회는 글로벌 교회들의 중심 언어가 된 ‘처치 플랜팅’church planting에 그토록 무지와 무관심을 보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제는 교회 세대church generation는 사라지고 습관신자church-goer만 늘고 있다. 목사는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한다. 교회가 모든 것의 중심center에 있어야 하고 전부all가 되어야 한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찌할 수 없이 처치 플랜팅을 해야 할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the church를 선물로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은 교회를 보여주시기 위해 목사의 눈을 다시 열어주실 것이다. 교회를 볼 수 없게 만들고 있는 한국교회의 패러다임은 무엇일까?

① 나의 교회 신드롬my church syndrome

한국교회는 점점 교회의 개념이 공교회에서 사교회로 잘못 이동하고 있다. 교단에 소속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론 개교회성이다. 교회는 소유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개념으로 교회를 보는 관점이 변해야 한다. 교회에서 사용되는 언어에서 부터 개념을 분명하게 성경적, 신학적, 교리적으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교

회는 너의 교회, 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다. 교회를 쉽고 가볍게 보는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교회의 탈교회화를 막지 못하게 된다.

② 인문학humanities 점유

한국교회의 부정적 패러다임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교회관의 상실이다. 교회관은 철저하게 교회의 본질로부터 근원을 찾아간다. 교회가 교회를 모른다면 교회는 존재성이나 정체성도 없게 된다.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는다면 그것은 이미 인본주의 안으로 깊이 들어간 교회이다. 교회관은 질서에 근거를 둔다. 질서order란 우선순위priority이다. 교회는 언제나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from God이다. 신론the doctrine of God은 언제나 모든 것의 처음을 말한다. 하나님에게 돌아가라back to God.

③ Pm6:00

21세기 세계 교회들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다. 그러나 한국교회와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세계 교회들의 주제는 처치 플랜팅church planting이다. 20여년 전부터 CP 운동은 전 세계로 급속도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 시간표는 한창 힘차게 태양이 오르는 해돋이sunrise의 시간 Am6:00이다. 그러나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은 일몰sunset인 Pm6:00, 교회를 향해서 어둠이 몰려올 뿐이다. 교회를 떠나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교회를 포기하는 이들도 많다. 교회절망과 교회무망의 소리가 들려온다. 교회가 교회를 잃는다. 지는 해를 바라만 보는 교회 패러다임이 무엇일까? 교회가 보이지 않으면 자연히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 교회로 돌아가자back to the church.

④ 변두리 교회outskirts of the church 사교방식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말씀하셨는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행1:4).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눅24:47).

교회 패러다임과 트렌드church paradigms & trends를 바로 알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58회 이상, 예루살렘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시, 그곳은 중심center이다. 센터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나 모든 도시는 복음의 불모지이며 죄악의 온상이며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의 전쟁터이다. 사람들이 도시를 찾지만 도시는 그들에게 보상보다 대가를 지불하게 만든다. 그래서 처치 플랜팅의 패러다임은 도시교회city church 즉, 중심교회center church를 세우는 일이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도시가 없다. 모든 도시가 복음의 변두리이고 오래된 교회들만old churches 지정된 위치의 지리적 교회일 뿐 새로운 교회new church가 개척되지 않는다. 한국교회는 플랜팅planting 되는 교회보다 지도에서 사라지는 교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가? 왜 성경의 역사가들이 멈추었는가? 중심에서 변두리로 밀려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답이 있다. 행9:31절처럼 사도행전으로 돌아오라back to the Acts.

⑤ 교회 세대church generation의 충격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을 처치 제너레이션church generation, 즉 ‘교회 세대’라고 부른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더 이상 이 땅에서 교회를 볼 수 없게 된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하고 의심하거나 부정하지만 사실 그런 도시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 그러나 처치 플랜팅의 중심에 서있는 국가나 도시는 사도행전의 교회들처럼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미국교회들 중에 빠르게 성장하는 100대 교회들outreach은 10%-79%Relevant Church, Locust Grove, GA/ Carl Nichols까지, 개척 10년 만에 25,000명 이상 출석교회Elevation Church, Matthews, NC/ Steven Furtick가 있고, 대부분의 교회들 70%가 20년 미만인 것을 보면 2,000년 이후 조성된 처치 플랜팅 세대church planting generation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패러다임은 다르다. 전혀 처치 플랜팅 세

대가 형성되고 있지 않다. 세계 교회의 패러다임이 너무 많이 변했다. 한국교회만 뒤로 간다. 아직도 교회만 지키면 된다는 식은 율법적이다. 그러나 교회를 말해야 교회가 된다. 교회를 가르쳐야 교회를 배운다. 교회를 모르면 교회에 상처만 주고 교회에 어려움만 준다. 처치 플랜팅 교회 세대가 만들어져야 한다. 젊은 목사는 반드시 교회 세대의 새로운 플랜터planter가 되어야 한다.

⑥ 클러스터cluster의 저항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의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자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사람과 연관 되어있지만 사람이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너무나 교회의 본질이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는 약화되고 자신들의 사상과 이념과 추구하는 것들에 따라 클러스터들의 저항은 교회의 권위를 넘고 있다. 왜 교회가 분쟁, 분열, 단절이라는, 겪지 말아야할 문제들로 힘들어하는가? 교회의 구조structure가 잘못되어서 그렇다. 처치 플랜팅이란 교회됨Let the church, Be the church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교회는 이미 사람들의 세력화 혹은 집단성에 흡수되어 진리와 상관없이 그들의 주장과 결정이 교회의 영향력이 된 것이다. 이것은 유독 21세기 한국교회의 병폐이다. 교회는 사람들의 힘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와와의 관계, 성령의 이행이라는 삼위일체와 함께한다. 교회는 사람이 중요하지만 사람은 교회의 중심 안에 있어야 한다.

⑦ 교회church

교회는 교회이다church is church. 이것은 교회를 정의하는데 절대적 선언이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런 교회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 선한 일을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줘야 한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며 교회가 만일 그

렇게 되된다면 교회의 중심은 무너진다. 교회가 포스트모더니즘과 함께 하면서 교회 무용론이나 폐기론을 말하기도 한다. 왜 그럴까? 교회church를 세상의 원리로 보기 때문이다. 교회 위협의 마지막 패러다임은 교회를 보는 시각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사람과 사람이 필요로 하는 교회는 언제나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점점 교회를 사람 속으로 집어넣고 교회와 사람을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보다 우월하게 만든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에 이끌린다(딤후6:15). 지금 한국교회의 패러다임은 모든 영역에서 교회를 다시 세우는데 힘써야 한다. 교회 텍스트, 교회관, 교회 지침을 사도들처럼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 세워지지 어렵다. 교회는 교회로서 명확해야 한다. 엡5: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동안 교회들이 너무나 교회를 가볍게 취급했다. 교회를 세우는 명령을 소홀하게 여긴 결과는 냉혹하리만큼 우리 시대가 겪어야 할 고통이 되었다.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외면하면 안 된다. 교회의 개혁과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결코 해보지 않았다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교회가 작든 크든 안정기plateaued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목사의 리더십도 변혁적이어야 한다 the next generation of Kingdom-minded leaders. 그리고 개 교회주의에서 공교회와 우주적 교회로의 새 교회관에 따른 미래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교회는 변한다. 그리고 갱신의 교회renewal church보다 무서운 새 교회new church를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 우리가 맞이한 이러한 현실 앞에서 당당하게 거침없이 바른 교회를 세워가자. 그래야 교회의 미래가 열리는 것이다.

김두현 목사의 이것이 목회본질이다



김두현목사 21C목회연구소 소장, 월간 아름다운사람 대표

사회학자 피터 버거는 “다원주의 상황에서 종교 제도는 점차 매개기관이 되고 경쟁적인 시장기관으로 변형된다”고 했다. 교회에 가장 치명적인 적은 ‘변형’이다.

변형이란 본질과 체계가 바뀐 상태를 말한다. 만일 교회가 원형에서 이탈돼 변형된다면 탈(脫)교회라 불러야 할 것이다. 겉으로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명목상 교회일 뿐이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원형 교회에서 멀어지는 현상이다. 이 말은 주님이 세우도록 명령하신 그 교회(마 16:18), 즉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 김두현 21C목회연구소장이 2016년 4월 서울 극동방송에서 개최된 ‘극동방송 60주년 기념 목회자 세미나’에서 한국교회가 세속화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시대적 흐름, 사람의 선호도, 성장 리더십과 전략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교회는 사업도 기업도 단체도 아닌 고유한 교회 속성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교회는 마을, 지역, 도시, 나라에 세워져 있지만 이를 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한다.(마 6:33) 그것이 교회의 고유성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His church)를 세우는 목회를 해야 한다.

그러나 20년간 목회연구소 사역을 하면서 오늘날 대다수 한국교회와 목회자

의 모습 속에서 발견한 점이 있다. 한마디로 말해 세속화병(secularization disease)에 걸린 상태였다.

세속화병이란 육적, 물질적, 세상적 욕심에서 발생하는 병이다. 누구든지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히면 영적 생활, 경건생활, 신앙생활은 자연히 세속화된 다. 특히 목회는 영적 영역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 교회 세움, 영혼 구원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고상한 행위다.

만일 목회자가 야망이나 욕심을 이루려고 하면 목회는 자멸하고 만다. 교회와 목회는 목회자의 투철한 사명과 충

성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선택과 최선의 집중에 있다. 사도행전에서 실천의 삶을 살았던 사도들과 같은 의식과 삶을 살아내는 끊임없는 열정이 목회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교회 목회자는 너무 바쁘다. 목회적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다. 모임 문화가 높아 중심이다. 목회를 위한 탐구가 매우 빈약하다.

만약 목회자가 세속화의 물결을 거스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세속화를 넘어설 비전 제시에 실패하거나 세상 부와 명예와 지위 탐닉, 성공신화에 매몰되면 어떻게 될까. 망망대해에 떠 있는 뚝단배처럼 될 것이다.

교회는 목회자에 의해 방향과 목표가 만들어지는 조직이다. 오늘날 교회가 자본주의, 몰락주의, 성과주의, 외형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화가 심해지는 원인은 세상의 흐름에 있지 않다. 목회자의 가치체계, 세계관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먼저 변해야 한국교회가 변한다. 목회자들이 기도해야 성도들이 기도한다. 목회자들이 철저하게 자기희생을 해야 성도들도 헌신한다. 목회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해야 교회 공동체에 성령님이 임하

신다. 목회자가 복음 중심의 삶을 살고, 교회 중심의 목회를 해야 질서가 세워진다. 목회자가 전도해야 성도들도 전도한다.

21C목회연구소는 목회자의 사명을 회복하는 곳이다. 연구소를 찾아오는 대부분은 목회 탈진과 깊은 자괴감, 바닥까지 떨어진 자신감, 오랜 기간의 침체에 눌러 쓰러지기 직전에 온다. 돌파구를 갈망하다가 떠밀려서 온다.

그렇게 와도 그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빠른 교회 성장 비결이다.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프로그램만 얻으려고 한다. 그렇다 보니 10명 중 8명은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 한다.

왜냐하면, 이곳에 매주 모여 목회 테크닉, 프로그램, 이벤트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목회자 자신의 부르심과 자질, 목회 토양, 교회의 상태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자가 진단하는 과정과 커리큘럼을 거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진다. 자기 목회에 ‘직면’해야 하니 얼마나 고통됐는가.

목회자가 명심할 것은 목회에 왕도나 지름길은 없다는 것이다. 은퇴하는 날까지 세속화병에 걸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절제와 자기 성장에 매진해야 한다. 목회 집중력 상실, 경쟁의식, 교만과 허영, 명예와 돈, 대만과 나태, 게

으름, 정욕과 성, 성공주의 등의 환경에서 말이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가장 무서운 유혹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자신의 길을 달려가려는 어리석음이다. 목회학의 3대 고전이라 불리는 리처드 백스터의 ‘참 목자상’(Reformed Pastor), 찰스 브릿지스의 ‘참된 목회’(Christian Ministry), 그리고 존 에인절 제임스의 ‘간절 목회’(An Earnest Ministry)는 자기 길만 내달리려는 목회자들이 정독하며 읽어야 할 필독서다.

제임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영혼을 회심케 하시려는 데 미지근하고 게으른 목회자에게 결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부지런하고 끈질기게 씨름하는 것을 통해 영혼 회심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역자로 삼으시고 불꽃을 당신의 사자로 삼으십니다.”

사도 시대 이후 영적으로 가장 강력했고 종교개혁기와 청교도 시대, 영적 각성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을 받았던 신실한 목회자처럼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들처럼 반드시 깊은 고뇌와 자기성찰, 겸손과 순종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다음호 계속

축복의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광고는 접수 순입니다



주님의 사랑 세계선교센터
THE LORD'S LOVE WORLD MISSION CENTER

※ 현재선교분야 ※

- 케냐, 인도, 필리핀, 일본, 벨리즈, 캄보디아에 천국 지옥 간증 집회와 목회자 세미나를 통한 영적대각성운동
- 물이 부족한 지역에 물통설치 및 성경보급, 교회건축
- 어린이 방과 후 학교 40군데 운영
- 신학생들 학비와 생활비 보조



대표
서사라
목사



회장
이창복
목사



부회장
양철주
목사



부회장
김진석
목사



고문
권오준
목사



고문
이성우
목사



고문
서아론
목사



고문
서영자
목사



고문
권경자
목사



여러분의 후원으로
세계선교가 가능합니다.



주님의 사랑
세계선교센터
The Lord's Love
World Mission Center

예금주 주님의사랑교회 (한국)
계좌 140-012-615297 (최신)
신한은행

예금주 Lord's Love Christian Church (미국)
계좌 207190448 Citibank
Swift code : CITIUS33
Paypal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참된교회



담임 강영철 목사
외 성도일동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73 S/L 501호
☎ 031-510-7631

대한예수교
장로회

송천장로교회



담임 최종환 목사
외 성도일동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 149
☎ 032 664-9191

대한예수교
장로회

늘평안교회



담임 김용백 목사
외 성도일동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57번길 38
☎ 031 469-1127

대한예수교
장로회

열린문교회



담임 이창복 목사
외 성도일동



인천시 연수구 비류대로 232번길80(청학동 103-2)
☎ 032-833-8790